

나눔의 시작

김성훈/생명의 전화 상담부장

필 필자의 업무 중에 자원봉사 상담원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년 150여명의 상담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려는 자원자를 모집하여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상담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의 삶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때, 그 「상담」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큰 의미의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인지는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야만 상담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된다.

상담원으로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않은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두가지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고통속에 사는 사람이 그리 많을 줄 몰랐다'는 말과 '그런 이들의 아픔을 듣다보니 어떻게 도와야 할 지 몰라 상담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교육 과정을 통해 주지하여도 막상 실제 현실에 부딪쳐 겪게되는 어려움이겠다. 필자는 그 상담의 현장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 이외의 삶에 무관심했는가, 또 서로를 돕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려는 의식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나마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그동안 무관심하게 산 것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표현된 정도니, 그런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진정한 나눔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 농경사회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이기에 자연스럽게 나누어야만 되는 삶이었다. 현대사회가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를 지양하며 개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개인 문화는 이기적 쾌락이 욕구를 발생시켰으며, 좋게는 창조성과 개성의 표현으로 나타났겠지만, 반대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사회 전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무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배 욕구와 방종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 나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여 누구나 그 의미를 부르짖지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은 과연 몇이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의심이 된다.

한가위 대명절을 맞아, 우리 농경문화



의 산물인 그 화목하고 풍요함의 시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귀향하고 귀경하던 모습을 통해 그 나눔의 축제가 때 우리는 철저히 자신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다. 기차나 고속버스 표의 예매과정에서의 무질서, 새치기, 암표상의 득세에서부터 꼭메인 고속도로에 한술 더 떠 이리저리 오락가락하고, 가변길로 주행하여 약삭빠른척 남들을 더 밀리게 하고, 그들이 전부 떠난 뒤에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같은 모습에 이게 무슨 나눔의 축제가 한숨들을 쉬었다. 고향을 찾은 이가, 아니 꼭 고향을 가지는 않았더라도 여하튼 집을 나선이가 전 인구의 분명 절반이상 된다고 하니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저런 이기적 행동을 하였는가 반성하는 사람이 그만큼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걱정할 것 없겠으나, 정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책하기는 커녕 나는 절대 아니라는 떳떳함(?)을 말하는 사람들 뿐이니, 우리 사회의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일단면인 것이다.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TV나 신문을 통해 고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보며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하고 분개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거나, 나에게도 무책임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 점차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눔다는 것,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내가 무엇이 얼마나 많아 줄 것인가. 나눔이라는 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동료의식인 것이다. 같이 살아가야만 하기에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혹 다른 이가 어떤 고통 속에서 힘겨워 할 때 보살피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때론 반대로 나타나 나도 언젠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때가 반드시 있는 법이다. 이런 나눔의 의미를 아주 나쁘게 해석하여, 어떤이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쓸모없는 이가 되거나 고통과 외로움의 절망 속에서 쓰러져 버리면 그것은 그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의 그 결과를 결국 남아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시간과 돈이 곱절로 들어가야 그 얼룩진 모양들이 제대로 고쳐지게 된다. 그보다는 바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비록 도와달라고 칭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보살폈더라면 나의 조그만 투자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보살핌과 나눔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깨달음은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은 타인을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그로 인해 자신이 감수해야 할 손실이 두려워 타인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를 꺼리게 된다. 바로 우리 자신안에 쾌락만을 추구하

는 이기심과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이타심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참인간으로 옳바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내적 결정에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눔의 실천을 위해 몇가지 관념적 방법부터 살펴보면, 첫째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상대방이 처한 정황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해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 첫걸음이다.

둘째는 나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의 나눔의 의식 확산이다. 하바드 대학의 워팅이라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타성이 높은 문화권에서는 가정의 역할이 적극적이며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핵가족제도가 지배적이거나 계층간의 구분이 큰 문화권에서는 이타성이 낮다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후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나 우리의 삶이 외형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면적 의식은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나눔의 의식은 전이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천적 기능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배우고,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내가 그런 이웃을 위한 삶의 마음가짐과 조그마한 것이라도 끊임없는 실천을 함으로써 의식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변화는 바로 내 주위의 사람을 변화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

잡지읽는 생활속에 보람찾는 밝은내일